

# 옥정호 간선임도 개통

###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금기리 잇는 4.45km 구간... 지역주민 큰 힘

삼진강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통행에 큰 불편을 겪은 옥정호 인근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 졌다.

임실군에 따르면 운암면 운정리(수암마을)에서 금기리 사당골을 잇는 4.45km 임도가 47개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5월 초에 개통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60년대 삼진강 댐 준공 이후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20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하며 왕래했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운암면 수암마을과 금기마을 주민은 인접한 지역이지만 20km 넘는 거리를 우회하거나 소형 나룻배에 의

존하여 왕래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번 임도의 개통으로 지역주민들 뿐 만 아니라 산골진화와 옥정호 수변을 보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진강 자전거길 동호인 뿐만 아니라, 나래산 등산로와 연계하여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어 트레킹족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군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끈질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인 15일에도 심 군수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군은 옥정호 주변 임도개설과 함께 올해 임도사업에 17여억원을 들였다.

간선임도 3.5km, 작업임도 4km, 임도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15.5km 등을 시설하기 위해 3월에 착공하여 오는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운정~금기임도는 산불진화 등 위기상황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삼진강댐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단절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어현동 오감만족 도시숲, 미세먼지 감축 도움

남원시가 어현동의 승월폭포와 소리체험관 사이에 조성한 오감만족 숲이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미세먼지 감축, 온난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무단경작지로 이용되던 시유지 1.2ha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억원을 들여 오감만족 숲을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특히 이 곳은 남원시내를 가로지르는 요천에 설치된 승월교와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숲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숲은 승월폭포 옆 광장에서 시



따라 순환로를 연결해 숲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감만족 숲 내에는 유아를 위한 친환경 놀이시설과 음수대·벤치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문화강좌가 가능한 명상 데크와 잔디밭도 있으며, 전문대와 소리체험관으로 연결돼 주변 관광지 접근성이 좋은데다 사내권과 가까워 산책 및 운동코스도 각광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의결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

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 지원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

는 경우 1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일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군정 현안 실태조사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를 구성해 올해 추진중인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장은 15일 개회사를 통해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점검하는 특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모든 사업은 군민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순창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군정특위 전계수 위원장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2019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 순창군, 소비자에게 착한 브랜드 대상 수상

순창군이 1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9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았다.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착한 기업을 격려하고 이들의 착한 브랜드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2007년부터 귀농귀촌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사비와 집들이비, 소득사업비, 주택수리 및 설계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2012년에 귀농귀촌상담반을 구성하고 2013년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해 체계적인 귀농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매년 5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설립되면서 도시민 상담·홍보 및 지역민과 융합을 위한 활성화사업(동아리활동, 귀농귀촌인 멘토활동, 농지및주택정보제공, 화합행사, 선진지견학 등)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실업농장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2030세대 도시농촌 청년캠프 운영 등 젊은 층의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타 지역과 차별되는 착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전국 학생 체육 준비에 만전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이 지난 14일부터 17일,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소년체전이 전북에서 치러지는 건 지난 92년 이후 오랜만에 주경기장은 익산이며 남원에서도 장애학생체전에 보치아 종목이, 소년체전에 레슬링종목과 플러링종목이 치러질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사전홍보를 통한 대회분위기 조성부터 숙박·요식업소 위생점검까지 소관 9개 부서가 참여한 추진상황 합동보고회

를 개최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 예술, 체육이 어우러지는 복합행사를 지향하는 이번 대회의 취지에 맞춰, 남원시에서는 대회 기간 캐릭터 포토존에서 춘향전·흥부전 속 주인공체험, 춘향전 캐릭터와 사진찍기, 문화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 남원 출신 선수로는 플러 등 9개 종목에 46명이 선발되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고 주택화재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민생활 밀접장소인 대형마트서 영상을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남원 순창 관내의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율이 현재 57%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에서 홍보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보건소

#### 구조·응급처치 교육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17일 전북대 병원과 연계해 구급차 운전원,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공동주택관리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 발생시 골든타임(4분 이내)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해 실시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처치로 생명유지 및 심장약화로 인한 치명적인 장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응급활동의 기초, 심폐소생술 이론 및 미네깁을 이용한 실습,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박은 보건지원과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상황에 대비코자 공공시설 및 각 읍·면 관내 보건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110대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결혼이민자

#### 하트-맘 10명 결연

남원시는 최근 여성단체협의회원과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0명과의 '결혼이민자 하트-맘' 결연식을 갖고 멘토-멘티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혼이주여성들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결연증서를 교환한 뒤 무드등 만들기, 사랑의 편지쓰기, 식사를 하면서 마음으로 이어진 모녀의 정을 나누는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올해도 든든한 새 엄마를 갖게 됐다.

남원시의 '하트-맘'은 2013년부터 추진돼 올해 7년째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생소한 언어와 문화 환경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으며, 올해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사업의 주제는 '리본(re-born)맺기'다.

관계자에 따르면 결연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공영, 감보디아 전통춤 등으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시립감병종미술관, 지리산 허브밸리 등 관내 새로운 관광지를 알아가는 활동과 멘토에게 한가위 만능 레시피를 전수 받는 기회도 가진다.

노경희 여성가족과장은 "하트-맘으로 다시 만난 인연, 새롭게 맺은 인연이 모두 오래 유지되어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